

# 1980년대 한국 민중문학과 박노해

이명원(경희대)

## 1. 희극적 토대결정론

1987년에 있었던 이른바 ‘6월 민주항쟁’도 벌써 30여년에 근접해 있다. 그 사이 한국사회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가장 큰 변화는 민주화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일리 있는 말이고 부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민주화가 과연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물음 앞에서 필자는 회의적이다. 절차적 민주주의의 형식은 얼마간 갖추어졌다는 점에서라면, 민주화는 얼마간 이루어졌다. 파시즘 세력들이 정치의 전면에서, 다는 아니지만 퇴각한 것도 사실이다. 무엇보다도 ‘반공주의’의 파괴적인 영향력이 상당 부분 약화되었다는 점은 다행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오늘의 한국 민주주의의 현실은 냉정하게 말하면 ‘정치계급’들의 각축장이 되어버렸다. 표피적 민주화는 되었을지언정, 심층적 민주화는 아직도 어렵도 없는 수준이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가령 최장집 교수처럼 ‘정당정치의 미성숙’에서 찾고 싶지는 않다. 구조도 바뀌고 행위자도 바뀌어야 하는데, 정당정치는 여전히 권력독점과 엮관정치에의 욕망을 버릴 수 없는 ‘정치계급’들이 ‘국민’을 들먹이고 있는 수준이고, 한국사회의 가장 민감한 의제들에 대한 토론은 실종되고, 최종심급에서의 의사결정은 ‘헌법재판소’라는 현대판 ‘법복귀족’들이 장악하고 있다.

동시에 이념정당을 표방하고 나선 부드러운 좌파정당 민주노동당은 제도정당으로서의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공중분해 되어, 현재는 좌파정당 자체가 사실상 소멸해버린 형국이다. ‘정치계급’들의 지역주의에의 선동이 다소 약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영호남과 충청의 지역연합에 편승하려는 정치세력들의 해체-재구성은 활발하고 교활하다. 시민운동의 확산과 참여민주주의의 확산을 기대했던 것이 사실이나, 시민운동조차도 갈지(之)자의 행보에서는 예외가 아니다. 그간의 시민운동 진영을 보면, 도덕성의 문제에서도 많은 문제들이 드러났지만 사태를 봉합하는 데서 멈춰 있고, 특히 문제해결 능력의 부재는 안타까운 수준이다. 공론장의 붕괴현상도 심각하다.

반면, 보수 및 극우세력의 준동은 넓고도 깊어지는 양상이다. 한때의 히스테리한 반동으로 끝날 것 같던, 이들 세력들은 ‘뉴라이트’라는 젊은,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 직후의 혼란기를 연상시키는, ‘보수혁명’을 꿈꾸고 있는 국가주의적 전향좌파들이 결합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마르크스가 다시 태어난다면 서러워할 법한 희극적인 ‘토대결정론’을 거꾸로 든 채로,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걸 맞는 한국사회의 개조와 재편을 집단적으로 제창하고 있다. 모든 정치적 담론이 ‘선진화’와 ‘국민소득’, 그리고 ‘성장동력’에 맞추어져 있다. 자유주의의 최소한의 관용일 ‘최소 수혜층’에 대한 인식(존 롤즈의 용어)조차 생략한 채, 그들은 선진화 대한민국을 외치고 있다.

그런가 하면, 문학관의 문인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시장을 상대화하는 능력을 상실한 채, 동시에 드넓은 현실과 역사에 대한 상상력을 괄호 친 채, 신기한 박래품(舶來品) 담론의 폭죽놀이에 전념하고 있다. 시인과 작가들이야 그렇다 치고, 나를 포함한 비평가 집단의 시대적 현상추수의 태도는 기막힌 바가 없지 않다. 이 와중에 소설가 이문열과 복거일을 포함한 <문화미래포럼>이라는 뒤 늦은 반공주의와 경제주의로 무장된 문인들이, 오늘의 문화관을 전체주의라 규정하는가 하면, 87년 6월민주항쟁을 때 아닌 ‘6월혁명’으로 규정하자면서, 한국사회의 보다 나은 가능성에 대한 실험 그 자체를 봉쇄하는 담론을 끈질기게 유포시키고 있다.

1980년대 비평을 ‘재인식’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인데, 사실 내 판단에는 ‘재인식’ 보다는 ‘인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1980년대를 재인식하자는 것은 복거일을 포함한 신자유주의시대 우파 문인들의 시각이고, 실제로 그들은 1980년대 문학=전체주의라는 간명한 등식을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 글의 부제는 ‘1980년대 진보적 비평의 인식①’이 되었다. 또 한 가지, 이 글을 쓰면서 현재도 느끼고 있는 바인데, 1980년대 비평을 단칼에 인식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다. 방대한 자료를 검토하는 수고가 필요한데, 이것이 불가능해 나는 시간적으로는 1980년-1985년 사이에 발표된 비평들을, 김병걸과 채광석이 편집한 비평 앤솔로지인 □80년대 대표평론선□(지양사, 1985)을 참조했다. 그러다 보니, 6월항쟁 이후의 비평계의 천변만화했던 이론적 스펙트럼에 대한 검토는 자연스럽게 생략되었고, 특히 진보적 비평 이외의 비평적 흐름에 대한 검토도 진행되지 못했다. 그래서 이 글은 80년대의 진보적 비평, 그 가운데서도 87년 6월 항쟁 이후에 대한 논의는 생략된 불완전한 형태의 시론(試論)적인 성격을 갖게 되었다는 점도 미리 밝혀 둔다.

## 2. 합리적 연합전선

1980년대 전반기 비평을 읽으면서 확연하게 깨닫게 되는 것은 ‘연대의 상상력’이라고 명명해야 마땅할 문학적 태도가 두드러진다는 점이다. 이 부분에서 나는 오늘의 비평적 현황을 잠깐 환기시키고 싶다. 오늘날 ‘연대’는 다소 황당한 공동체적 판타지로 전락하고 있는 것처럼, 특히 젊은 비평가들에 의해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소장 비평가들의 다소 염세적인 태도는, 그들이 섭취하고 있는 이론에서 분비된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한국사회의 구조적 모순과 현실적 모순을 ‘타자의 정치학’이라는 담론 안에서 이론적으로 휘발시킨다. 하위주체는 말할 수 있는가 또는 작가들에 의해 정치적으로 올바르게 재현될 수 있는가의 문제, 주체와 타자와의 ‘비대칭성’에도 불구하고 대화는 가능한 것인가를 둘러싼 문제, 타자에 대한 주체의 인식론적 태도란 ‘환대’가 아니면 ‘적대’일 수밖에 없다는 점의 이론적 근거로 동원하는 데리다 식 이론이 현실읽기를 선글라스처럼 가리고 있는 것이다.

현실에 대한 이론의 ‘착시현상’이 자못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인데, 그러다 보니 근대예술의 총아인, 성숙한 인간탐구의 총화였던 소설조차 그 스케일이 ‘무중력 공간’ ‘미친, 새로운 소설’ 운운하는 만담(漫談)적 세계로 전환하는 것을 오히려 이론적으로 옹호하는 논리가 대세를 이루는 기묘한 풍경도 나타난다.

이에 반해, 80년대의 비평을 검토하면서 확연하게 발견할 수 있는 사항은 ‘연대의 상상력’이다. 일단 연대의 기반은 ‘민중’이라는 현실적으로는 강한 규정력을 갖지만, 이론적으로는 개념적 정의가 어려운 주체에 대한 논의에 집중된다. 이 부분에서 흥미로운 것은 민중주체의 문학으로서의 민중문학론에 대한 논의가 백낙청의 민족문학론에서 분화하는 지점에 대한 감론을박이다. 먼저 백낙청은 자신이 제창했던 민족문학론이 “민족운동의 주도세력으로서의 민중에 대한 과학적이고도 구체적인 인식이 부족했”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런 점에서 보면 80년대 민중문학론은 70년대의 민족문학론의 심화과정인 것이 사실이지만, 민족문학론의 문제의식을 청산한 민중문학론의 독자성을 주장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견해를 피력한다.

그 역시 기층 민중들의 육성을 들려주고 있는 유동우의 □어느 돌맹이의 외침□, 석정남의 □공장의 불빛□, 장남수의 □빠앗긴 일터□와 같은 수기. 르포 류와 박노해의 시집 □노동의 새벽□의 중요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지식인의 ‘민중지향성’과 ‘민중성’ 그 자체를 혼동해서는 안 되며, 같은 측면에서 민중 그 자신에 의해 생산된 작품을 신비화하는 일도 경계해야 한다고 말한다. 지금의 입장에서 보면, 일리 있는 지적이 아닐 수 없는데, 백낙청의 이러한 주장은 당시에 날카로운 평필을 선보였던 채광석, 이재현, 현준만, 백진기 등의 젊은 평론가들에게서도 어느 정도의 동의를 얻었던 주장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들 젊은 평론가들은 상대적으로 지식인들보다는 민중들 그 자신의 글쓰기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어쨌든 일반적으로 전체적 인식과 조망에 구체성에의 실천에 있어서나 지식인 작가들이 자기 몫을 다하지 못한 반면 민중역량의 성장을 담고 대두한 노동 당사자들의 체험수기, 일기 등은 단순한 삶의 기록이 아니라 열악해져 가는 구조적 모순의 전형적 발현장인 노동현장에서 그 모순을 극복하려는 민중 자신의 투쟁과 자각의 기록으로서의 개별적 제한성이 갖는 뚫고 사회적 상황의 핵심적 전체성에 육박하면서 □어느 돌맹이의 외침□의 끝부분에서 보이듯 민중 해방의 미래전망을 정녕 감동적으로 드러내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이런 비판이 현실성을 띠었던 것은 당대에 이른바 지식인 작가에 의해 산출된 ‘민중적 상상력’에 기반한 작품들이라는 것이 사실 양이나 질적인 면에서 미약한 수준에 있었기 때문이다. 소설의 경우, 노동현실을 다루고 있는 작품이란 황석영의 □객지□에 등장하는 떠돌이 노동자,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의 알레고리화된 노동자들에 불과했고, 급속한 공업화에 따른 농촌분해의 현실 역시 이문구의 □우리동네□ 수준에서 맴돌고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소설적 상황은 지식인 작가의 체험부재와 함께, 문학창작을 포함하여 언로(言路)를 말 그대로 야만적으로 통제했던 전두환 정권의 탄압이 가장 강력한 규정력이 되었던 것이 사실인데, 그런 와중에 민중 쪽에서 직접 생산된 새로운 형식의 문학이 이들 소장 비평가들에게는 뚜렷한 한 개의 가능성으로 다가왔던 것이며, 그것이 이후 이른바 ‘장르확산’ 논의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민중적 연대의 상상력은 여러 면에서의 논의를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되는데, 그 과정을 오늘의 현실에서 관찰해 보면 흡사 1920-30년대의 카프 문학운동의 경로와 유사하게 전개된다. 먼저 민중구성에서 이중적 성격을 띠고 있는 농민과 농민문학에 대한 논의가 등장하고, 당대 민중문학의 핵심주체라 할 수 있는 노동문학에 대한 다채로운 논의가 등장하며, 민중적 연대의 상상력과 민족문학론의 문제의식이 제3세계 문학으로 확장되는 경로가 그러하다.

오늘의 입장에서 흔히 80년대 비평에 대해 가해지는 비판은 여러 양상이지만, 특히 이 시기의 비평이 이른바 ‘지도비평’의 형식을 띠면서, 문학계를 경색시켰다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그런데 이러한 일반적인 주장은 섬세하게 검토되지 않고 있고, 단정형의 형태로 제시된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과연 그 실상은 어떠했는가. 적어도 6월 항쟁 이전, 그러니까 민족문학론에서 분화해나간 다채로운 이론적 쟁투가 급진화. 첨예화되기 전까지의 기간에 한정시켜 보자면, 80년대의 비평은 기왕의 지식인 문학이 보여준 성과는 성과대로 유연하게 흡수하면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민중적 글쓰기 양식을 의미부여하는 데 집중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르포와 수기 류를 포함한 주변적 장르가 당당하게 문학의 한 중요한 장르로서 인식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박노해를 포함한 노동자 시인의 출현을 비평적 토론의 중심주체로 설정하면서, 제도화된 근대문학의 엘리트주의적 속성을 상대화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문학과 현실이 공진화할 수 있고 또 그래야 한다는 시각을 보여준 것은 결코 타매할 일이 아니다.

실제로 당대의 소장파 평론가 이재현은 이렇게 말한다: “이제 ‘민중’이라는 이념이 대중적으로 거부감 없이 수용되고 있는 마당에서 불필요한 감정대립 등은 제거되고 보다 발전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젊은 세대들의 생각인 것이다. 물론 그것이 서투른 종합이나 선부른 화해로 귀결되는 것이어서는 아니되지만, 적어도 공통의 실질적 적대 세력과의 힘들고 긴 싸움의 과정에 요구되는 합리적 연합전선이 모든 문학인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합리적 연합전선’이라는 표현이 돋보이거니와, 이재현의 이러한 발상은 민중문학 또는 민중문학운동이 단순하게 분노의 직정적인 표출로 환원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그는 이 발언이 가해진 평문에서 조동일과 김홍규 등의 국문학 연구, 박태순, 백원담 등의 제3세계 문학연구, 심지어는 김현, 김치수 등의 외국문학 연구의 성과까지도 “민중문학에 적지 않은 밑거름이 되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80년대의 이른바 민중과 비평가들을 향해 가해지는 ‘지도비평’적 경향과 문학을 이데올로기화하면서, 문학계를 경색시켰다는 비판은 적어도 1980년대 전반기의 비평적 현실을 생각하면, 결코 예리한 비판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물론 80년대 후반에 이르면, 이 합리적인 연대의 상상력이 ‘노동계급 당파성’이라는 구호 아래 경화되는 사례가 나타나는 것은 분명한 일이지만, 적어도 87년 6월민주항쟁 이전의 민중문학론은 변화하는 한국사회와 새롭게 출현하고 있는 문학양식에 대한 설득력 있는

답론을 제출했다고 판단된다.

### 3. 연대와 에로스 효과

1980년대의 비평의 분화과정을 살펴보면, 도식적으로는 백낙청 식의 민족문화론이 민중문화론으로 일차 분화한 이후, 여기에서 민중적 민족문화론, 노동문화론, 그리고 더욱 급진화된 노동해방문화론 등으로의 입장분열이 세분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비평의 분화양상은 당대의 현실과 구조적 모순의 우위를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로 인해 발생한 것인데, ‘계급모순’ 이냐 아니면 ‘분단모순’ 이냐 하는 질문은 그래서 나온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이러한 사후적 분화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 중반까지의 비평계는, 당대의 구조적인 모순에 대한 공통의 적대를 상징하고 있었다. 그것은 다 아는 대로 1980년 5월 광주항쟁을 무력화시킨 후에 집권한 신군부세력이었고, 이들의 과시적 정치행태, 이로 인한 민중적 삶의 피폐화, 자본주의 모순구조의 심화 현상이었다. 과시적 정치상황 아래서는 비평가들의 이념적 스펙트럼이 자유주의자거나 사회주의자거나를 막론하고, 일종의 질식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었는데, 역설적으로 이것이 엘리트문학과 민중문학, 자유주의 문학과 진보적인 문학 사이의 공통의 적대를 지양하기 위한 연합전선을 가능케 하였다.

80년대 중반까지의 비평적 논의를 지켜보면, 초기에는 한국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파악하는 시각이 민중세력과 반민중세력의 이원화된 갈등구조로 표상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때 민중세력은 경제학자 박현채의 개념정의를 빌면 “노동자 계급을 기본으로 하여 근로자 범주의 농민, 소상공업자, 도시빈민, 일부지식인”이다. 민중개념의 외연이 이렇게 정립되다 보면, 이에 대립되는 반민중세력은 명료해진다. 아니 반민중세력의 실체는 1980년 광주 이후 이미 뚜렷했다고 볼 수 있는데, 자연히 반민중적 현실을 지양하기 위한 실천의 일환으로서의 민중문학은, 민중진영의 내부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연대의 필요성을 요청받게 된다.

실제로 이 시기에 대거 등장한 르포와 수기 류에 대한 활발한 논의와 집회현장에서 생산되는 문건과 기록물들은 생생한 삶의 현장에서의 살아있는 민중들의 생활감정을 반영한 작품으로 간주되었다. 여기에는 신군부의 등장 이후, □창작과비평□과 □문학과지성□이라는 양대 계간지의 등록취소와 이에 따른 제도문단의 위축, 이에 따른 문학적 대응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등장한 무크지(Mook)와 동인지 운동의 활성화, 제도화된 지식인 문학 개념의 급진적인 재구성을 통한 문학운동론적 시각의 대두, 보수적인 문학제도에 대한 불신과 작품의 창작과 수용의 일방향적인 통로의 전복, 문학의 객체에서 새로운 주체로 등장한 다채로운 민중적 글쓰기 양식의 출현이, 당대의 한국사회의 전면적인 변혁에의 열망과 어울리면서, 문학이라는 장 전체를 역동적으로 활성화하는 계기를 이루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시기의 비평은 말 그대로 무정부적이었고, 해방적인 기획으로 충만했으며, 기왕의 문학제도와 문학개념은 물론 당대적 현실 전체를 해체하고 재구성하고자하는 ‘에로스 효과’로 충만했다. 이러한 문학계의 상황을 김도현은 ‘장르확산’이라 명명하면서, 당대의 문학계가 ‘실천문학’과 ‘생활문학’이라는 두 가지 뚜렷한 경향성을 보여준다고 주장한다. 실천문학이란 대체로 민중지향적인 지식인 문인들에 의해 창작되는 운동성을 대변하는 문학경향이고, 생활문학이란 장르의 독자적인 구조 속에 갇히지 않고, 장르 사이를 자유로이 넘나드는 문학으로 대체로 민중들 자신에 의해 생산되는 글쓰기 양식 전체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요약하고 있다.

그런데 김도연의 당시의 판단에 의하면, 지식인들에 의한 실천문학이 침체되어 있는 가운데, 민중들의 생활문학은 매우 역동적인 면모를 보여주고 있지만, 그것이 질적인 차원에서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것도 사실이라는 점에서, 생활문학에 대한 무조건적인 고평은 위험하다는 시각이 드러난다.

이러한 김도연의 시각은 백진기에게서도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그 양상은 약간 다르다. 백진기는 노동자들의 르포와 수기에 대한 비평가들의 환대가 비판 없는 민중추수주의로 갈

수 있음을 경계하는 동시에, 지나치게 문학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태도 역시 운동론적 시각을 저해할 수 있음을 다음과 같이 환기시킨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작업은 상부구조적인 관점에서 '문학장르로서의 수기 혹은 르포' 를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진정 수기와 르포를 통해 어떻게 발전적으로 그 실천적 가치평가를 해나가야 만이 그 특유의 운동형태가 극대화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다. 문학적 범주가 본래 선형적인 개념이 아니었으므로, 문제의 핵심은 수기와 르포가 문학이냐 아니냐라는 비본질적인 논의구조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수기와 르포가 지니는 그 어떤 특수한 운동양태에 대한 활발한 해명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것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반대화적 풍토를 철저히 배제시킬 필요가 있다. 이 진술은 기층민중이 스스로 창작주체가 되어 한편의 글을 발표한다고 해서, 그 적극적인 의의를 모두 인정한다할지라도, 아무 과학적이고도 비판적인 성찰 없이 맹목적으로 추종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백진기의 위의 지적은, 수기와 르포를 포함한 민중들의 생활문학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도, 암암리에 잔존하고 있는 문학주의의 성격에 대한 반성을 촉구하고 있다. 백진기는 '문학화된 민중운동' 보다는 '운동화된 문학', 즉 전체 민중운동에 실천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문중문학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 그 전환의 구체적인 이론적 프로그램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면, 87년 6월 항쟁 이전의 진보적 비평계는 전두환 세력의 파시즘적 지배체제를 단일한 적대로 상정하면서, 노동자 계급을 근간으로 한 민중들의 포괄적인 연대의 기반 아래서, 당대에 생산된 민중문학의 새로운 양식들을 체계적으로 의미화하는 데 주력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기반 아래, 특히 인접학문인 사회과학계에서 진척되기 시작한 사회구성체 논쟁의 이론적 성과를 문학적으로 수혈해나가면서, 문학운동 진영 내의 급격한 이론적 분화를 이뤄나갔던 것으로 보이지만, 적어도 87항쟁 이전의 문학비평계에서 급진적이면서도 다원적인 정치적 비평의 분화는 아직 전개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니까 단일 적대 속의 광범위한 민중 연대의식에 기반한 비평적 실천이 1980년대 전기 비평의 성격을 규정한다고 볼 수 있다.

#### 4. 박노해와 리얼리즘

논의를 하다 보니, 구체적인 작품론에 대한 80년대 비평의 성과에 대해서는 점점이 되지 않았다. 그것은 필자가 80년대의 비평을 성실하게 검토하지 않은 데서 일차적으로 비롯되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1980년대라는 이 시기가 유독 메타비평이 활성화되어 있었던 시기였다는 점도 거론될 필요가 있다. 비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80년대의 비평가들은 각론보다는 총론적 성격의 논의에 집중했고, 그것은 당시의 비평이 일종의 '시대정신' 과 '문학의 시대적 성격, 의미, 기능' 을 밝히는 데 주력한 데서 나온 한 현상이다. 그런 점을 고려하면, 1980년대의 비평은 정치적 비평이 가장 강렬하게 제창되었던 시기였음이 분명하다.

물론, 그런 가운데서도 예리한 작품론이 나타나지 않았던 것은 아닌데, 특히 노동자 시인 박노해의 □노동의 새벽□은 대다수의 비평가들에게 자신의 진보적 비평을 검증할 수 있는 일종의 리트머스 시험지로 간주되었으며, 민중문학에서 노동문학이 자립하여 날카롭게 분화할 수 있는 한 실체적 근거로서 자주 거론되었다. 1980년대 민중문학계에서 박노해의 출현은 노동자들의 현장수기와 르포 류를 제외하면, 본격적인 차원에서의 작품이 부재했던 현실에서 예리한 이론적 논의를 작품과 연계하여 제공할 수 있는 뚜렷한 근거가 되었다. 더구나 직접적인 문학담당층으로서의 노동자 시인의 출현, 그 작품세계가 보여주는 뚜렷한 문학적 노선과 미학적 형상화의 탁월함은 이제 민중문학 논의가 운동론과 함께 미학적 논의로 비약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풍경이었다.

박노해의 시에 대해서는 당시의 거의 모든 비평가들이 고평(高評)해 하지 않았다. 채광석은 박노해의 「손 무덤」을 거론하면서, 그의 시가 '즉자적 민중' 의 한계를 뛰어넘은 '대자적 민중' 으로 전환하는 양상을 가장 직접적, 집약적으로 보여준다고 고평한다. 민중문학에

대한 전면적 동의를 표하지 않았던 백낙청 역시 박노해 시의 탁월성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그러나 동의는 전면적이기보다는 유보적이다. 그는 박노해의 시가 “노동자만이 쓸 수 있는 시이기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시라는 특성을 잘 살렸기 때문에 훌륭한 것”이라는 평가를 내리면서, 신경림, 김지하 등의 시적 전통과 영향을 환기시키고 있다.

80년대가 시의 시대였다는 주장은 당대에도 일반적이었다. 그런데 박노해가 당대의 비평계에서 주목을 끈 이유는 현준만에 따르면, 박노해 시가 방향 감각을 상실한 무질서한 시적 난립과 70년대적인 ‘속류 민중주의’ 모두에 충격을 가하면서 등장했기 때문이다.

80년대 한국문학의 두드러진 현상으로 자주 규정되어온 ‘시의 시대’라는 영예로운 수식어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수식을 가능케 한 근래의 시의 양적 팽창과 방향의 다양함이 오히려 방향 감각을 상실한 무질서한 시들의 난립현상을 감추기 위한 빈말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계속되고, 아직도 70년대 식의 ‘속류 민중주의’에 사로잡혀 공허한 구호적 감상주의를 벗어나지 못하고, 또 80년 ‘5월’이 갖는 엄청난 무게의 중압을 이겨내지 못한 채 ‘5월’의 언저리나 분위기에 머물면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시인들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요즈음의 시단에 박노해가 던졌던 충격은 상당히 심각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현준만은 박노해의 시에서 ‘시적 리얼리즘’의 가능성을 발견한다. 그는 박노해 시의 이미지들이 시인의 관념적 개입에 의해서가 아니라, 물질적 기반에 탄탄히 버티어서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장적 구체성’에 집중하고 있는 면모에 주목한다. “박노해의 시집 □노동의 새벽□은 기층 노동자들이 노동의 현장에서 비인간적인 삶의 질곡과 억압에 짓눌리고 좌절하면서도, 마침내는 그들 스스로 노동자임을 자각하고 그들을 구속하는 물질적 세력을 딛고 일어서서 노동의 새벽을 향해 주체적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박노해의 시적 리얼리즘은 현준만에 의해 구속과 해방의 변증법으로 명명되고 있거니와, 그 개념은 다음과 같이 명료하다. 그에 의하면 박노해의 시는,

현장에 뿌리를 박고, 현장을 구속하는 물질적 세력을 정직하게 기록함에 의해 뛰어난 현장성, 시적 리얼리즘을 보여주는 박노해의 시는 자신을 구속하는 물질적 억압을 있는 그대로, 피하지 않고 수락하면서도 마침내는 이를 해방의 발판으로 삼는 ‘구속과 해방의 역전관계’를 보여준다. 여기서 말하는 해방이 부분적이고 관념적이 아니라 총체적 현실적인 인간해방이라는 면에서 그것은 뚜렷한 정치성을 띠게 된다.

현준만은 박노해에게서 민중문학의 한 전형을 발견하고 있거니와, 특히 박노해 시에서 그가 ‘리얼리즘적 성취’를 강조하는 부분은 이후의 한국 민중문학의 미학적 지도원리로서의 ‘리얼리즘론’이 소설양식은 물론 시양식에서까지 포괄적으로 비평적 심의기준으로 작동하는 근본적인 계기를 이루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는 위의 인용문에서 박노해 시의 현장성과 당대현실에 대한 총체적인 파악, 그리고 상황의 억압성을 능동적으로 지양하는 미래전망으로서의 해방적 전망까지를 기꺼이 읽어내고, 이는 단순히 박노해 개인의 시적 성취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당대의 민중문화 전반으로 파급되어야 할 기준점이 되고 있다.

실제로 박노해의 □노동의 새벽□은 민중문학에 대한 비평가들의 심의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했고, 기층 민중이 생산한 문학작품을 아마추어리즘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예단하면서, 굳이 그것의 정치적 메시지에만 주목했던 여타의 비평가들에게, 정치성과 미학성을 리얼리즘이라는 문예학적 개념 속에 높은 수준에서 통합하는 민중문학의 출현을 촉구하는 강력한 근거가 되었던 것이다. 실제로 박노해 이후에 등장한 일군의 노동자 시인의 존재는 이러한 민중미학의 현실적 가능성을 강력하게 보여주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로부터 80년대 비평은 민중문학의 아마추어리즘과 일상성을 뛰어넘어, 고도의 정치의식과 미학성의 공진화를 촉구하는 문예학적 논쟁이 심화되기 시작하는데, 이러한 논쟁의 심화는 6월항쟁을 전후하여, 리얼리즘론의 세분화와 급진화라는 궤도로 논의를 진전시킨다. 부르주아 리얼리즘과 비판적 리얼리즘, 거기서 더 나아가 사회주의

리얼리즘이라는 첨예한 이론적 쟁투는 물론이고, 사회구성체론의 심화에 따른 민중진영 내부의 이론적 분화와 급진화가 정교하게 또는 광범위하게 담론을 재배치하기 시작하면서, 단순히 진보적 비평으로 범주화할 수 없는 다수의 진보적 비평‘ 들’의 문학적 노선투쟁이 격화될 준비를 끝마치고 있었던 것이다.

## 5. 함께 갔던 폭풍 전야

제한된 지면에서 80년대의 비평을 포괄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역시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마찬가지로, 6월항쟁 이전의 진보적 비평의 전개양상을 인식해보고자 한 이 글의 목적도 충분히 충족되지 못한 것처럼 느껴진다. 실제로 이 평문에서, 나는 일군의 소장비평가의 논의에 집중한 결과, 동시대의 증견비평가로서 활발하게 당대 비평계에 중요한 논의를 제출했던 임헌영, 염무웅, 최원식 등의 비평적 논의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가치평가조차 내리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의 비평의 다음과 같은 특징을 추출해 본 것은 얼마간의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첫째, 이 시대의 진보적 비평은 분단모순에 기반한 민족문학론에서의 느슨한 민중개념을 정교화하면서, 민중주체의 문학론으로의 이론적 전환을 가능케 한 민중인식의 개념화에 깊은 관심을 기울였다.

둘째, 이러한 과정은 한편에서는 민족문학론에서 민중문학론으로의 분화를 촉구한 동시에 민중 단위 안에서 노동자 계급의 주도성을 확인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는데, 이를 통해 당대 한국사회의 심화된 계급모순에 대한 첨예한 인식의 촉구가 가능해졌다.

셋째, 이러한 과정 속에서 문학의 생산과 소비를 둘러싼 기왕의 부르주아적 문학제도 전체가 근본적으로 상대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문학생산 주체로서의 민중적 장르확산 및 문학의 정치성을 둘러싼 논의가 심화되었다.

넷째, 이러한 현상은 문예학적인 차원에서 리얼리즘론의 심화와 확대에도 커다란 기여를 하는 동시에, 이후의 이론적 분화를 가속화했다.

다섯째, 80년대 진보적 비평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문학을 체도로부터 해방시키는 것과 동시에 그것을 정치적으로 전화시키는 운동론적 시각을 일반화하여, 문학과 삶의 일원적 실천을 가능케 하였다는 점에 있다.

이런 다섯 가지 특징이 종합된 결과이자 원인으로 특히 ‘연대적 상상력’의 비약적 확장이라는 현상은 주목할 만하다. 80년대의 진보적 비평을 통해서 지식인 문인들은 ‘민중지향성’에 대한 존재전이의 자의식을 확보했고, 반대로 스스로 말할 수 없었던 민중단위는 민중적 지식인으로서의 한국사회 전체를 투시할 만한 지성을 확보하는 계기를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자본의 불균등한 배분만큼이나 심화되었던 심미적이고 정치적인 실천의 불균등한 배분구조를 재구조화하는 어려운 작업이 가능해졌다.

이것은 80년대 전반기 진보적 비평이 성취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성과라고 판단되며, 동시에 이후에 전개되었던 87년 6월항쟁이 우발적인 사건의 갑작스러운 진행이기보다는, 문학에서 출발한 민중의식의 각성이 사회의 전 부문으로 파급되어 특정한 순간에 비약적 에너지를 내뿜은 에로스 효과의 일종이었음을 우리에게 환기시킨다.

그래서 80년대 전반기의 진보적 비평은 전두환 파시즘 정권이라는 단일한 적대에 대항하는 지식인과 민중의 수평적 연대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이후 진행될 진보적 비평의 정파적이거나 당파적인 분화를 눈앞에 둔, 노선과 입장 분화의 핵폭발 직전 또는 폭풍 전야(前夜)의 내밀한 긴장감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새벽의 이미지로 느껴지는 것이다. 신경질적인 청년 비평가 이재현이 자주 언급했던 노래 가사처럼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의 시대가 바로 그 즈음이었을 것이다.

